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7개월 대장정 돌입...개장 이틀만에 28만명 '구름 관중'

윤대통령 "순천, 한국의 거점으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하 정원박람회)가 지난 1일 개막하고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정원박람회 개장 이틀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유료 관람객은 22만 3137명으로 집계됐다. 유동인구 이동통신 자료를 기반으로 집계한 무료권역 방문객은 6만여 명으로, 이를 통한 정원박람회를 즐긴 관람객은 28만 명에 달한다.

2013년 치른 정원박람회의 이틀간 입장객이 8만5820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년 전보다 3배 넘는 관람객이 정원박람회를 찾은 셈이다.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정원박람회는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이자 핵심 공간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비롯한 순천만습지와 무료 권역인 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등 165만평(545ha) 도심 전역에서 7개월 동안 치러진다.

지난 1일 연 개장식은 여야 대표가 축하 영상을 보내는 등 각계 주요 인사의 방문과 축하가 이어졌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개막 선언에서 "국민의 열망을 모아 앞으로 7개월동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순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일에는 동천을 따라 2.5km(편도)를 항해한 뒤 순천만국가정원에 도달하는 '정원드림호'가 처음 출항했다.

정원드림호는 박람회가 열리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인터넷파크)과 현장 발권을 함께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여름철인 6-8월에는 야경을 더 많은 이가 즐길 수 있도록 입장 시간을 밤 9시까지(퇴장 밤 10시)로 1시간 늘린다.

박람회장의 범위는 10년 전 박람회(111ha)보다 73.9% 넓어진 193ha로 조성됐다. 미래정원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원식물원과

시크릿가든이 새로 조성됐고, 키즈정원과 반려견 놀이터 등이 관람객의 편의를 높여줄 예정이다.

미래 생태도시의 모범을 보여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31일까지 휴장 없이 진행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이번 박람회 기간 목표로 세운 입장객은 800만명이다.

앞서 개장일 전날인 지난 31일 오후에는 오천그린광장 수상 무대 '물 위의 정원'에서 개막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3만여 명이 참석한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으로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모여 순천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며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에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개막식 이후 순천만국가정원 체류형 숙박시설인 '가든스테이'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정원박람회 핵심 중 핵심인 '가든스테이'는 4월 예약률이 85%를 넘겼다. 윤 대통령 부부와 만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소병철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일부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7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김건희 여사를 정식으로 초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광주에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담한 뒤 김 여사에게는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언제라도 꼭 외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광주비엔날레 참석 요청 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제14회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 최대의 현대미술 축제로, 오는 7일 개막해 7월9일까지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이틀째인 2일 오후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7개월간 800만명 방문을 목표로 세운 정원박람회에는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28만여 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순천=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진실에 대한 목마름...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단독 인터뷰, 광주일보 유튜브 영상 인기 폭발 '100만뷰 임박'



태어난 존재니까 죽어야 마땅한데도

전두환 손자 전우원 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조회수 77만회 2일 전 더보기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30일 전두환 손자 전우원(27)씨를 만나 촬영한 인터뷰 영상의 장면.

/천희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사죄 없이 사망 전두환에 맞힌 광주의 한을 손자가 풀어줘
방송 이틀만에 조회수 77만 회...호남 언론 사상 최고 기록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의 인터뷰 영상 조회수가 77만 회(3일 오후 7시 기준)를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6면>

5·18민주화운동의 학살주범인 전두환씨가 43년 동안 사죄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사망했지만, 그의 손자인 전씨의 사죄가 지역민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일부나마 풀어줬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5·18 학살의 책임자를 자신의 조부인 전두환으로 적시하는 등 80년 당시의 진실 규명에 한발짝 다가간 점도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의호식하던 전씨의 일가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전두환 손자 전우원 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영상

의 조회수가 이틀만에 77만회를 달성했다. 영상 댓글 수도 2600여 개에 달한다.

광주·전남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물 중 조회수가 70만 회를 넘긴 것도 이례적이지만, 조회 수 증가세도 눈에 띈다.

이 영상은 광주에 사죄를 하러 오겠다는 전씨가 광주에 도착 직후, 밀린 빨래를 하기 위해 숙소인 근 빨래방을 가는 도중 광주일보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는 전씨가 할아버지인 전두환씨와 전씨 집안에서 5·18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할아버지와 의 관계 등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는 이 영상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미디어가 우리가 보는 것을 다 통제하듯이, 가족 내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뤄지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가끔은 내가 태어났으면 안 되

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에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앞으로 의지도 밝혔다.

전씨와 진행한 인터뷰는 다른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전씨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 5·18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씨 일가가 5·18을 어떻게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교육해왔는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록적인 조회수에는 전두환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진심어린 사죄를 하는 전우원씨에 대한 공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오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조만간 100만뷰를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43년 동안 호의호식 해온 전두환과 그의 일가에 대한 폭로에 온 국민들이 시원한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 "또 전씨가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오월단체 "전우원씨 사죄 진정성 느껴져"	▶6면
김도영 부상...승리에도 웃지 못한 KIA	▶18면
호남의 농정 - 프롤로그	▶22면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종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